

01 교회소식

만민과 함께한 신문

주의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종이 된 우리 교회를 널리 전하는 만민뉴스가 창간 28주년을 맞았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신속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03 특집

신앙생활이 행복한 이유

만민뉴스를 이웃에게 전하며 강건함의 축복을, 우편으로 매주 받아 읽으며 믿음의 축복을 받는 등 애독자들의 간증.

04 특집

"응답의 열쇠가 가득해요~"

영적인 믿음으로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고 영육 간의 문제를 응답받으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만민뉴스

제686호 2015년 5월 1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만민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32개 언어로 발간되는 '만민뉴스' 창간 28주년 맞아

전 세계 만민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만민뉴스가 창간 28주년을 맞았다.

1987년 5월 17일, 월간 '만민중앙소식'으로 창간해 정기 구독자의 증가와 교세의 폭발적 확장에 힘입어 1991년 10월 교회 창립 9주년을 기점으로 격주 신문으로 발행됐다. 또 1991년 1월, 영어판 만민중앙소식 발간을 필두로 다국어 신문 발간을 시작했다.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은 2009년 10월 11일, 지령 400호부터는 제호를 '만민뉴스'로 변경하고 주간 신문으로 발행하고 있다. 2012년 11월부터는 인터넷 만민뉴스(www.manminnews.com) 서비스를 시작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스페인어, 러시아어, 따갈로그어, 불어, 타밀어, 인도네시아어, 힌디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일어, 태국어, 비사야어, 아랍어, 에스토니아어, 히브리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우르두어, 네덜란드어, 불가리아어, 핀란드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미얀마어, 네팔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싱할라어 총 32개 언어로 발간된 만민뉴스를 전 세계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

앞으로도 만민뉴스 제작팀은 전 세계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1만여 자협력 교회의 선교 소식과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콘텐츠로 독자들을 찾아갈 것이다.

1987년 5월 17일 월간 만민중앙소식 창간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 발간된 만민중앙소식 창간호 1면에는 '말씀과 은혜가 충만했던 2차 부흥성회'라는 제목으로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집회 소식과 이 목사의 첫 번째 저서이자 간증수기인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발간 소식 등이 실려 있다.



초대교회처럼 넘쳐나는 성도의 신앙 간증 게재

교회 개척 때부터 현재까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온갖 질병이 치료되고 얽히고설킨 인생 문제를 해결받아 참 행복을 찾은 성도들의 간증은 만민뉴스의 보물이다. 기사와 표적,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됐고, 재창조의 권능으로 사람의 마음밭까지 개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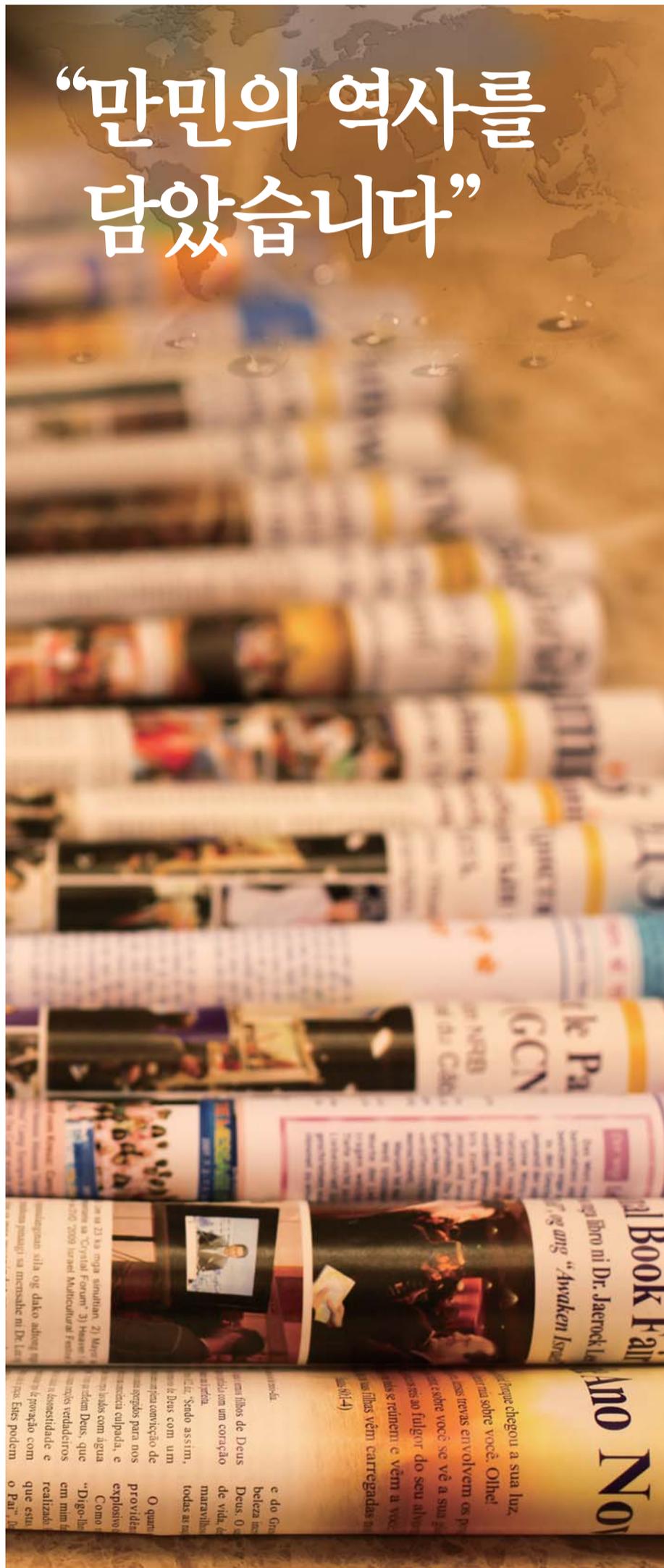
교계 활동과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해외 연합대성회 보도

전 성도가 참가한 '92 세계성령화대성회,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 희년대회 등 1990년대 국내외 왕성한 교계 활동을 보도했다. 또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진행된 열두 차례의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와 우간다, 파키스탄, 인도,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개최된 십여 차례의 해외 연합대성회 소식을 집중 보도해 전 세계에 전파했다.



세계적으로 치러지는 교회 행사 및 해외 인사 교회 방문 취재

전 세계 만민 성도들이 함께하는 전교인 하계수련회를 비롯, GCN 방송과 책자, 신문을 통한 활발한 세계 선교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해외 인사들의 은혜로운 간증과 방문 소감을 취재해 게재했다. 또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행 19:11~12) 집회 등 국내외 곳곳에서 일어나는 만민의 사역을 보도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하나님의 뜻

을 때는 근심과 걱정,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모르기에 연수가 강건해야 될, 팔십인 인생을 즐기고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좇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소망으로 좋을 때만이 아니라 시험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자녀들은 이 땅에서 상대성을 체험한 후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광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의 연단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천국과 큰 영광을 주시고자 허락된 것임을 믿고 연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기도를 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순종해 기도하면 어떤 큰 문제를 피하거나 불의의 사고에서 보호받는 등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그 음성을 듣고 주관하심에 따라 순종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야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때에도 마음 안에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간혹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같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옛 구습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해도 육신의 생각과 비진리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중심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없지요.

그러니 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성령의 교통 속에 살아가야 범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삶이 변화되고 마음의 악을 벗어 성결을 이루며 험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를 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이 마음 안에 없을 때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앞길에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니 원수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믿음을 떨어뜨려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며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삼상 12:23).

셋째,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 된다면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넘치게 됩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

이 없다 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요. 우리가 평생을 두고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깊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받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지요. 이러한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궂은일 가운데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해도 할 수 있지요.

육으로는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합력해 선을 이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롬 8:28). 감사에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라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끄시지요. 필요에 따라 연단하시고 그때그때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과정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 주십니다. 이때 얼마나 감사함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성장도 달라지지요.

혹여라도 ‘나는 왜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틈탄다면 이것이 벌써 감사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겨 행함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응답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1) 항상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 또는 기분이 좋고 감사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본받아 항상 습관을 좇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도 습관을 좇아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를 하면 영이 자라 강건해지고 힘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지요.

만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쉬면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곤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기도를 계속 쉬면 우리의 영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항상 습관을 좇아 기도 양을 채우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지요. 그러니 늘 보호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것 외에 때

...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삶 속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며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시험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곤고하게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얼마나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혹여 질병이나 가정, 물질 문제 등으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즐거울 때만 기뻐하고 시험 환난과 문제가 올 때는 기뻐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 땅의 삶에만 목적을 두고 살며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에 육적으로 기쁘고 즐거울 때만 기뻐하고 그렇지 않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4면에 이어)



**“만민뉴스를 전하면서
질병이 치료되고
강건해졌습니다”**

정필경 집사
(67세, 3대대 31교구)

‘만민뉴스’는 제게 건강의 축복과 신앙의 활력소를 가져다 줍니다. 매주 500~600부 정도를 접어서 빌라나 주택, 상점에 전하면 참으로 뿌듯하지요. 이처럼 ‘만민뉴스’를 정성 다해 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딸(정승이 집사)이 교회에 다닌다고 많이 핍박했고, 술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물어린 기도와 전도로 2007년 10월, 만민중앙교회에 발을 내디뎠지요. 교회에 와 보니 매주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을 목도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결심하게 됐지요.

그래서 ‘만민뉴스’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여 년간 고생 하던 당뇨병이 치료되고 예전에 왼쪽 팔목을 다쳐 손에 힘을 줄 수 없었는데 손목에 힘이 주어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할 수 있도록 힘써 돕는 아내도 치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전엔 불안증이 심해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지 못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증세가 사라지고, 시력도 좋아졌으며 30년 된 오줌소태도 치료받았습니다.

이는 ‘만민뉴스’를 전하는 행함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열매임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만민뉴스’를 스크랩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어 ‘만민뉴스’를 쉽게 구할 수 없기에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를 통해 매주 금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새로 발간된 ‘만민뉴스’의 내용을 다운받아 말씀을 양식 삼고 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뿐 아니라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획특집 기사와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간증들을 통해 저도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근무하느라 말씀을 대하기가 쉽지 않아서 컴퓨터에 따로 폴더를 만들어 어느 때든 ‘만민뉴스’를 보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문을 모으지만 말고 행하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꿈을 깬 뒤 저는 큰 깨달음을 얻고 은혜받은 말씀들을 단순히 지식이 아닌 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힘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로 가까이
가는 즐거움입니다”**

권성희 권사
(60세, 미국 캘리포니아만민선교센터)



**“제 택시는 달리는
복음 자동차입니다”**

장푸성 성도
(55세, 대만만민교회)

2008년 1월, 오른쪽 다리에 봉와직염이 발병했으나 GCN 방송(www.gcnetv.org)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택시 기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게 됐지요.

이제 제 차는 복음 자동차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저는 차 안팎으로 여러 간증과 ‘만민뉴스’를 부착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이 미국인이면 영어로, 한국인이면 한국어로, 일본인이면 일본어로 제작된 ‘만민뉴스’를 전했더니 매우 놀라워하며 좋아했습니다.

다국어로 ‘만민뉴스’가 제작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당회장님의 신앙서적도 비치해 놓고 승객에게 전하곤 합니다. 작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택시를 탄 자매님 한 분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전하자 매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경공부에 참석해 ‘창세기 강해’를 듣고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 메시지가 담긴 귀한 말씀을 배웠다고 감사해했습니다.

이처럼 복된 소식이 담긴 ‘만민뉴스’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저는 더욱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쁨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대기업 신입사원 시절, 저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극도의 불안감과 심한 우울증, 이명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길에 이웃집 때문에 꽂혀 있는 ‘만민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꺼내 펼쳐보니 권능의 무안단물과 각종 치료의 역사가 실려 있었지요. 저는 매우 신기해서 ‘만민뉴스’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안내를 받고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고 나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건강도 회복돼 직장생활을 문제없이 잘할 수 있었지요. 지금은 글로벌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언스트앤영’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의 문제와 직장 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준 ‘만민뉴스’에 감사합니다.

**“극도의 불안감과
심한 우울증,
이명을 치료받았습니다”**

강동호 집사
(41세, 2대대 10교구)



Thank You

5월, 감사의 달
2015.5.17~5.23

우리의 영혼을 세롭게 하는 방송 GCN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 위로부터 난 지혜 1~2
- 육체의 결여 6~10
- 공간과 차원 1~3
- 창세기 강해 63~67
- 사랑 4~5
- 요한계시록 강해 73
- 의와 인과신 2
- 심고 거두는 법칙 2~4
- 천국 11~17
- 마음발을 개간하자 1~4
- 예언 2

GCN TV설교

- 사람의 증거 (이수진 목사)
- 마음발을 개간하려면 (이미영 목사)
- 빛의 열매 (이미경 목사)
- 착한 행실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2 (신동초 목사)
- 사랑과 오해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6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33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8
- English 11
- 옛날 옛적에 14
- 즐거운 요리 25
- 내 마음의 찬양 11
- 흥겨운 소리 2
- 창조와 과학 9
- 모두 드려요 28
- 뷰티풀라이프 7

해외성회 프로그램

-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2
- 회상 9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응답의 열쇠를 만민뉴스에서 찾았어요!”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담긴 복음의 소식지 ‘만민뉴스’를 통해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응답과 축복이 임하고 있다. 지면 관계상 몇 가지 사례를 게재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전신 무기력증을 치료받고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넘칩니다”

오영님 권사
(54세, 광주만민교회)

2004년 봄, 충남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심방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만민뉴스’를 보았습니다. 불치병, 난치병들이 기도로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대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에 저는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 들어가 은혜를 받던 중,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듣게 됐습니다. 무궁무진한 창세의 비밀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영적 설교에 매료됐지요.

이후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해 당회장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천국』, 『지옥』 등과 ‘믿음의 단계’, ‘악한 영의 세계’, ‘믿음을 척량하시니’ 등의 설교 테이프를 구입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구절절 쏟아지는 은혜와 감동은 목회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기에 충분했지요.

결국 저는 귀한 제단으로 인도받아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기며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게 한 소식지, ‘만민뉴스’를 사랑합니다.

1992년 2월, 첫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저는 전신 무기력증으로 7년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보증 선 것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아 남편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지요.

1999년 4월 말, 집 앞에 꽃힌 한 장의 ‘만민뉴스’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5월, 부흥성회에 참석해 저는 전신 무기력증을 깨끗이 치료받았지요.

이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니 잔병치레가 많던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원과 상관없이 살고 있으며, 남편도 온화하고 충실한 가장으로 변화돼 올해 1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권능의 사역을 보며 참된 목회자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문신현 목사
(62세, 2대대 15교구 부교구장)



“확실한 증거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라 치에 집사
(52세, 일본 이다만민교회)

이다만민교회에 처음 갔을 때 일본어 ‘만민뉴스’를 보았는데, 특히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마가이 소노코 집사님의 간증이었지요. 집사님은 난소암이 복막 전체에 퍼져 수술도 할 수 없었고 단지 항암 치료만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처럼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한국에 가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 깨끗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직접 간증의 주인공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의심이 사라졌고 큰 은혜가 임했지요. 한국에서 당회장을 통해 많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바로 제 옆 사람,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제게 큰 믿음이 됐습니다.

‘만민뉴스’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이해하게 되면서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강원도 정선 산간에서 매주 ‘만민뉴스’를 받아봅니다. 그때마다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딸과 아들들이 떠올라 반가운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지요. 특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은 간증들을 볼 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 딸(주영숙 집사)도 1996년 4월 어느 날, 땅에 떨어진 ‘만민뉴스’를 집어 읽은 뒤 만민중앙교회에서 개최하는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해 당시 어린 시절부터 있던 20년 된 종이를 치료받았지요.

저희 부부는 ‘만민뉴스’ 외에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에 감동받아 책이 닳도록 읽었습니다. 요즘은 『십자가의 도』 책자를 읽고 있으며, GCN 방송(www.gcntv.org)도 항상 시청하며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과 축복의 소식으로 항상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정경숙 집사
(59세, 강원도)



(이어서 3면)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재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북 제천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도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2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성북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5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